언더블랙

목차

[Phase.0] 폭로된 비밀과 침묵의 언니 **2**
[Phase.1]성버릇을 읽을 수 있는 치욕과 괴로운 변명 **3**
[Phase.2]실롬의 시선과 누나의 초상 **5**
[Phase.3] 얼어붙는 공기와 갑작스러운 제안 **6**
[Phase.4] 부풀어 오르는 망상과 숨겨진 갈망 **7**
[Phase.5] 현실을 잊을 정도로 감미로운 긍정 **8**
[Phase.6] 숨겨져 있던 도구와 잔혹한 엇갈림 **9**
[Phase.7] 착착할 생각과 가라앉는 의식 **10**
[Phase.8] 반전한 악몽 **12**
[Phase.9] 서류 관찰과 잔인한 현실 **14**
[Phase.10]역전의 불합리함과 다가오는 공포 **16**
[Phase.11]섬격의 강초 **17**
[Phase.12] 항문에 새겨진 강초의 잔향 **20**
[Phase.13]가위로 서류를 잘라 직시되는 항문 **22**
[Phase.14] 제형화된 처방과 직장으로의 절단 **24**
[Phase.15]굴복의 간청과 냉철한 절단선 **26**
[Phase.16]유린의 글리세린 충전과 울리는 종지부 **28**
[Phase.17]초 관장의 쾌감**,** 뿐만이 아니라**.** **31**
[Phase.18] 울리는 직장의 선율과 임계에의 태동 **32**
[Phase.19]한계의 **20**분간으로 번쩍이는 본심 **35**
[Phase.20]누나의 손으로 사정도 편의도 관리된다 **37**
[Phase.21]치수정지의 루프와 혼란하는 괄약근 **38**
[Phase.22]광란의 **2**대 욕구와 재래하는 유리의 끝 **41**
[Phase.23] 두 번째 관장에서 절정 사정 **43**
[Phase.24] 이중 충전의 임계와 넘치는 비액 **45**
[Phase.25]결괴의 갈색갈색 똥과 해방의 열류 **48**
[Phase.26] 배변 반사의 생리학과 숙변의 강렬한 냄새 **50**
[Phase.27] 비틀거리는 똥의 나머지와 치욕의 강의 **52**
[Phase.28] 자발적인 배변과 마지막 잔향 **53**
[Phase.29]유린의 잔향과 항문 케어 **56**
[Phase.30] 관장 플레이 후 다회와 불굴의 허세 **57**

[Phase.0] 폭로된 비밀과 침묵의 언니

학교에서 지루한 수업을 마치고, 실롬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평소처럼 자신의 방으로 직행한다.

문 손잡이에 손을 대고 역시 평소처럼 그것을 돌렸다.

기, 라고 미묘한 소리를 내어 문이 열린다.

거기에는 일상의 풍경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방의 중앙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 ...하임?」

무심코 그 이름을 말한다.

침대의 가장자리에 자리 잡고 있던 것은, 쌍둥이의 언니인 하임이었다.

그녀는 제복 차림 그대로, 조용히 눈을 감고 있다.

화가 나는 것도, 웃고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뭔가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소름 끼치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실롬의 시선은 그녀의 발밑에 끌린다.

거기에는, 발견되지 않게 엄중하게 숨겨져 있었을 것이다 「어려운 책과 게임」이, 산처럼 높게 쌓여 있었던 것이다.

전신의 피가 느껴지는 것을 알았다.

"왜 내 방에 있니?"

심장이 조종처럼 치기 시작하지만, 시롬은 필사적으로 동요를 밀어 죽였다.

여기에서 당황해 버리면, 완전히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어서, 실롬」

하임은 천천히 닫힌 눈꺼풀을 열었다.

차갑고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눈동자가, 실롬을 곧게 발사한다.

"지금, 아니야. 사람의 방에, 마음대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노력해 냉정한, 정중한 말투를 치고 실롬은 말을 했다.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지만 어떻게든 견딜 수 있다.

「그래...

짧고, 온도가 없는 목소리가 방에 울렸다.

그녀의 시선은 실롬에서 발밑에 쌓여 싶은 끔찍한 책의 산으로 이동한다.

"노크 정도하는 것이 예의군요"

실롬은 누나에게 스스로의 비를 인정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불법침입을 훼손한다는 스탠스를 무너뜨리지 않고

추궁한다.

어떻게든 이 소름 끼치는 공기를 타파하고 싶었다.

"흠.....?"

뭔가를 찾는 듯한, 낯선 울림을 가진 망치였다.

결코 묻지 않는다.

다만, 사실만을 제시해 상대의 나가는 방법을 엿보는 그 태도는, 어떤 노성보다 실롬에게 있어서 무서운 것이었다.

"뭐, 뭔가 그 눈은.

더욱 방전을 치듯이, 시롬은 말을 거듭한다.

어쩔 수 없는 책의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소유권과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주장하는 작전에 나선 것이다.

「프라이빗, 네…

하임은 다시 짧게 중얼거리고 시선을 쑥 실롬으로 되돌렸다.

그 표정에는 변함없이 변화는 없다.

「그렇습니다. 마음대로 건드리지 말고 싶습니다. 알았습니까?」

조금 빨리 버렸지만, 실롬은 확연한 태도를 무너뜨리지 않고 단언했다.

차가운 땀이 등을 전하는 것을 느끼면서 언니의 반응을 기다린다.

「굉장히… … 양이 있는 프라이빗이었지…

포츠리와, 하임의 입술로부터 감정이 빠진 말이 흘러내린다.

쌓아 올리고 싶은 괴로운 책의 산을, 그녀는 단지 담담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읏…

예상치 못한 각도로부터의 말에, 실롬은 마침내 말을 막히게 한다.

열심히 잡고 있던 여유의 가면이 소리를 내고 무너질 것 같았다.

「모으는 것도, 숨기는 것도, 힘들듯…

하임은 실롬의 변명을 듣는 모습도 없고, 단지 사실만을 말한다.

조용한 방 안에서, 득체의 모르는 긴장감만이 무겁게 걸려 있었다.

[Phase.1]성버릇을 읽을 수 있는 치욕과 괴로운 변명

하임은 쌓인 책의 산으로부터, 맨 위에 있던 1권을 무조작에 손에 들었다.

표지의 일러스트를 진지하게 응시한 후, 주저없이 페이지를 넘긴다.

파라파라와 종이가 긁히는 소리가, 조용히 감싸인 방의 공기를 소름 끼치게 떨리고 있었다.

「『…

하임의 입에서 벗어난 것은 일반적인 남녀의 교제를 그린 내용 등에서는 결코 없었다.

완전히 관장과 의료 플레이에만 특화된 심하게 매니악한 일절이다.

감정의 기복이 일절 깎아 떨어진 그녀의 평탄한 목소리가 활자의 이상성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

생생한 배변의 묘사나, 관장에 의한 배의 바닥을 뚫는 것 같은 무거운 감각이, 하이무의 로텐션인 목소리를 타서 용서 없이 읽혀져 간다.

자신의 가장 알려지고 싶지 않은 숨겨진 성버릇을 보다 쌍둥이 누나의 입에서 직접 듣는 지옥 같은 광경이었다.

「아, 그만해 주세요 하임! 목소리에 내서 읽지 말아 주세요!」

너무 수치스럽게, 실롬의 얼굴은 순식간에 끓인 것처럼 새빨갛게 물들었다.

귀 끝까지 열을 갖고, 참지 않고 양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게 하여 외친다.

머리 속이 새하얗게 되어 논리적인 사고 등 옛날에 날아가고 있었다.

「그래, 그러니까! 그건 말이지, 쇼, 장래, 의사가 되고 싶어서, 그것을 위한 의학적인 공부의 일환으로서군요...

더 이상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모르는 정도로 혼란스러워, 실롬은 입에서 나오게 하는, 심하게 괴로운 변명을 내세웠다.

의료 플레이나 관장의 묘사에서 무리하게 '의사'라는 단어를 끌어낸 만큼의, 누가 들어도 완전히 파탄하고 있는 이굴이다.

그런데도, 자신의 비를 인정하는 것만은 아무래도 피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

패탄, 라고 하임은 수중의 책을 닫고, 드디어 그 무자비한 낭독을 정지시켰다.

그리고,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서, 얼굴을 새빨갛게 하고 격렬하게 늑대 잡는 동생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본다.

쌍둥이 언니.

키도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에(1cm만 하임이 높은 것이 실롬에는 재미없다), 똑바로 시선으로 사통된다.

실롬은 견디지 않고, 눈을 돌리고 변명을 계속해 간다.

"그냥 학술적인 관심이에요. 타의는 전혀 없으니까요. 알겠어요?"

심장이 파열할 정도로 박박이라고 울리고 있지만, 실롬은 어떻게든 정중한 어조를 유지하면서 말을 짜내고 변명을 거듭한다.

조금이라도 약점을 보이면, 이 득체의 모르는 누나에게 무엇을 할지 모른다는 본능적인 공포가 거기에는 있었다.

"실롬은 의사가 되고 싶어. 흠.....?"

하임은 약간 목을 기울여 마치 실롬의 영혼의 안쪽까지도 들여다보는 깊고 차가운 시선을 향해 왔다.

그 단 한마디의 짧은 망치에는 남동생의 치열한 거짓말 등 모두 겉보기에는 절대적인 여유와 위압감이 가득하다.

실롬은 등을 전하는 차가운 땀을 멈출 수 없었고, 단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것처럼 설 수밖에 없었다.

[Phase.2]실롬의 시선과 누나의 초상

실롬은 호흡을 정돈하자 필사적으로 가슴을 상하시키면서 눈앞에 떠오르는 쌍둥이의 언니, 하이임의 모습을

노려보도록 응시하고 있었다.

같은 날에 태어나, 같은 나이이며, 같은 가정에서 자라, 같은 유전자를 나눠야 하는, 정 진정한 쌍둥이의 균열.

그러나 그 내면은 자신과 닮아도 닮지 않은, 바닥의 모르는 회색에 싸여 있다고 실롬은 항상 느끼고 있었다.

하임은 평소 무구하고, 감정의 기복이 거의 표에 나오지 않는 로텐션인 소녀다.

학교에서는 미술부에 소속되어 있어, 언제나 희미한 부실의 한 구석에서, 흰색과 검은색의 모노크롬인 그림만을 묵묵히 그리고 있는 것 같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는 신비한 분위기가 일부 남자에게 우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집에서의 그녀를 아는 실롬으로 하면, 그것은 단지 「소름스러운 침묵」일 뿐이었다.

집에서의 하이임은, 마치 공기처럼 기색을 지우는 것이 이상하게 능숙하고, 눈치채면 배후에 서 있는 것 같은 것이 일상 차반사였다.

게다가 감이 무서울 정도로 날카롭고, 실롬이 숨겨진 일을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은 시선을 향해 온다.

실롬은 평소부터 하임에 대해 강한 서투른 의식과 어딘가 저항할 수 없는 공포심을 안고 있었다.

언니로서의 위엄을 뿌리치고 울부짖는 타입이라면, 아직 말을 돌려 반론할 여지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하임은 달랐다.

절대로 목소리를 거칠게 하지 않고, 단지 가만히 관찰해, 상대가 자멸하는 것을 조용히 기다리는, 정신적으로 지와지와와 몰아 오는 타입인 것이다.

그러므로 실롬은 그녀 앞에서는 항상 완벽하게 이로 정연한 정중한 태도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유의하고, 조금이라도 자신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필사적으로 허세를 치고 있다.

오늘 이 순간도, 그 방벽은 한순간에 분쇄되어 걸려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실롬은 누나에 대한 패배를 절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Phase.3] 얼어붙는 공기와 갑작스러운 제안

깊게 바닥 모르는 언니에 대한 공포와 서투른 의식으로부터, 단 한순간만 사고의 바다로 가라앉고 있던 실롬이었지만, 카사리, 라고 섬세한 종이의 문지르는 소리가 방의 고요를 깨고, 그는 확실히 현실의 자실로 되돌려졌다.

시선을 앞으로 되돌리자, 하이임은 방금 전 닫았을 책의 표지를, 손가락 끝으로 소재의 함부로 비추고 있는 곳이었다.

무관심을 가장하는 냉담한 표정의 뒤에서, 그녀의 끊어진 눈동자는, 분명히 그 책의 띠에 뛰어드는 음란한 불평을 깜짝 훔쳐보고 있다.

아무래도, 평소에는 흑백의 그림만을 그리고 있는 기괴한 언니에게도, 동생의 방에서 나온 이상한 성질의 물품은, 나름대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었던 것 같다.

"이봐, 실롬"

「뭐, 뭐죠...

하임은 책을 잡은 채, 감정의 기복이 전혀 보이지 않는 로텐션인 목소리로, 포동포동하게 중얼거리도록 말해 왔다.

그 시선은 책에서 벗어나 가만히 실롬의 얼굴의 한가운데로 향한다.

"이 책에있는 것, 실제로 해보고 싶니?"

갑자기 던져진 너무 스트레이트하고 의도의 잡을 수 없는 질문에 실롬의 사고는 완전히 정지했다.

「... ... 에?」

하임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실롬의 입으로부터는 빠진 의문의 목소리가 새는다.

확실히, 방금전의 치열하게 극히 없는「장래는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괴로운 변명을, 이것이라도인가 이리 채우고 논파해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관장이라든지, 실제로 소녀와 하고 싶은 것일까라고 생각해」

하임은 조금도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담담하게, 마치 오늘의 저녁 식사 메뉴에서도 물어보는 것 같은 가벼움으로, 믿을 수 없는 단어를 거듭해 다시 들어 왔다.

그 순간 실롬의 심장은 드킨과 큰 소리를 내며 격렬하게 맥박을 쳤다.

전신의 혈액이 단번에 역류하는 듯한 강렬한 동요가 그를 덮친다.

눈앞에 앉는 이 무기질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는 쌍둥이 언니의 의도를 실롬은 필사적으로 머리 속에서 찾아보려고 했다.

왜 그녀는 이런 수치스러운 질문을 진지하게 던져 오는 것일까.

나를 철저히 쫓아 프라이드를 가루로 깎아내기 위한 악질적인 트랩일까.

아니면 내 비정상적인 성버릇을 흥미롭고 장난감처럼 망설이고 싶을 뿐일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임의 냉철한 눈동자의 안쪽에 있는 본심을 읽을 수 없고, 실롬의 등에는 가만히 싫은 땀이 배어 간다.

「어, 무슨 뜻입니까...

실롬은 필사적으로 목소리를 떨리지 않도록 평소의 정중한 어조를 유지하면서 방위 본능 그대로 말을 짜내서 들었다.

더 이상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 주도권을 붙잡을 수는 없다는 굉장한 저항이었다.

「관계, 있을지도 모르겠어」

하임은 작고 작은 목을 기울이면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은 채 너무 돌비로 결정적인 말을 고했다.

「그 관장 플레이는 녀석, 나랑 해보고 싶어?」

[Phase.4] 부풀어 오르는 망상과 숨겨진 갈망

하임의 입에서 쏟아진 그 말은 실롬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 계속 훈훈한 도스 검은 욕망의 도화선에 용서 없이 불을 붙였다.

심장이 토쿤, 토쿤과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을 정도로 크고 뜨겁게 맥박하기 시작한다.

여자에게 자신의 손으로 관장을 한다.

그건 실롬이 맘에 들었을 무렵부터 계속 꿈꾸며, 누구나 천지가 뒤집어도 절대로 털어낼 수 없는 최심부의 왜곡된 욕망 그 자체였던 것이다.

진짜는 생신의 소녀의 부드러운 엉덩이에 기구를 받고, 그 항문에 약액을 흘려 넣고 싶고, 하고 싶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러나 그런 광기 망상을 현실로 실현할 수 있는 수단 등일 것도 없고, 시롬은 단지 그 굶주린 욕망을 의사적으로 채우기 위해서만, 이들의 겉보기에 이상한 책을 사 모아, 밤의 밤인 자위 행위에 빠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아를 유지하고 있었다.

「...

그걸 다름아닌 쌍둥이 언니인 하이임을 상대로 하고, 정말 이루어져버려도 좋은 것일까.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눈동자로 가만히 자신을 응시하고,「관장 플레이, 나와 하고 싶은 거야?」라고, 당연한 일상 회화와 같이 거듭해 물어 오는 하임의 전에, 시롬은 스스로의 모든 의복을 벗겨져, 영혼의 형태까지도 완전히 들여다본다.

그의 뇌리에는 무서운 정도의 속도로 하나의 극채색의 망상이 부풀어 올라간다.

만약, 눈앞에 있는 이 하임에, 자신이 정말로 관장을 베풀게 되었다고 하면.

동생에게 나마의 엉덩이를 보여주고 관장된 하임은, 이 책에 그려져 있는 불쌍한 등장 인물들과 같이 극상의 편의에 번민해,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단지, 모인 똥을 배설할 수밖에 없게 되어 버릴 것이다.

저항을 용서받지 못하고 이루는 방법도 없고, 괄약근을 풀어 갈 수밖에 없는 최고 순간.

언제나 완벽하고, 잡을 곳이 없고, 어딘가 자신을 정신적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하는 이 쌍둥이의 언니에게, 자신의 손으로 관장을 베풀어, 그 엉덩이로부터 무잔에 똥을 새기게 한다는 배덕감.

그런, 꿈에까지 본 잔치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 내밀어지고 있다고 이해한 순간, 실롬의 등근을 강렬한 환희의 전율이 달려갔다.

객관적으로 보면, 하임은 모두가 되돌아볼 정도의 미소녀다.

정돈된 얼굴에, 서늘하고 신비한 공기를 두른 그 몸에, 자신의 손으로 직접, 관장의 노즐을 삽입한다고 하는 행위가

가지는 의미의 무게에, 시롬은 눈부신조차 기억할 것 같게 되어 있었다.

[Phase.5] 현실을 잊을 정도로 감미로운 긍정

실롬은 격렬하게 물결치는 가슴의 고동을 어떻게든 밀어 죽이고, 마른 목을 고크리라고 울렸다.

여기에서 기압되어 버리면, 평생 이 누나에게 머리가 오르지 않게 된다.

그는 빠듯한 곳에서 밟아 머물고 자신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굳이 도발하는 얇은 미소를 띄워 보였다.

「하, 하임이 아무래도 해보고 싶다고 한다면, 내가 그... ... 관장 플레이를 해 주어도 됩니다만...

굉장히 허세였다.

어쨌든 언제나처럼 "바보가 아니야"라고 차갑게 다루어지거나 심지어 농담을 받는 것 중 하나라고 실롬의 이성이 경종을 울리고 있었다.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실롬의 예측을 훨씬 그쪽으로 떠나게 하는 것이었다.

「응, 흥미있다. 해보고 싶다」

하임의 입에서, 놀라울 정도로 분명히, 그리고 헤매지 않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언제나라면「흠...

그 순간, 실롬의 뇌내에서 무엇인가가 화려하게 튀어나왔다.

너무나 자신의 형편이 너무 좋은, 바라야 할 완벽한 대답을 이끌어 버린 충격에, 그의 사고는 완전히 새하얀으로 물들여진다.

기쁨과 흥분의 파도가 단번에 몰려들어 전신의 세포가 환희로 떨리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자에게, 그 완벽하고 아름다운 하임의 엉덩이에 자신의 손으로 관장을 베풀어, 강제적으로 똥을 흘린다.

그런 망상 속의 사건이 지금 현실의 경계선을 넘어 자신의 눈앞에 굴러 온 것이다.

실롬은 행복감에 눈부신 것을 기억하고 시야가 엉망이 되는 듯한 감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건 정말 현실일까.

혹시, 자신이 학교의 수업중에 졸음을 하고 보고 있는, 형편이 좋은 꿈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해 버릴 정도로 눈앞에서 조용히 자신의 말을 기다리고 있는 하임의 모습이 심하게 비현실적이고 거기에 감미로운 과실처럼 실롬의 이성을 미치게 했다.

꿈이라면 깨우지 말고 싶다. 이 관장 플레이를 마칠 때까지.

[Phase.6] 숨겨져 있던 도구와 잔혹한 엇갈림

「그럼, 즉시 필요한 도구를 준비해라」

하임은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서자 어리석은 책의 산을 내려다 본 채 심하게 차가운 목소리로 그렇게 명령해 왔다.

「에… … ? 아, 네. 알았어요.

실롬은 뒤집을 듯한 목소리로 대답을 하면 떨리는 손으로 옷장으로 향했다.

거기에는, 평상시로부터 엄중하게 숨겨져 있는, 열쇠 첨부의 큰 상자가 버려지고 있다.

그는 지금까지 생신 여자의 엉덩이에 직접 관장을 한 것 등 당연히 한 번도 없다.

하지만 언젠가 찾아올지도 모르는 기적 같은 순간을 꿈꾸며 망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도구만은 이미 사들여놓은 것이다.

「… … 흠?」

하임이 흥미롭게 들여다보기 전에, 시롬은 상자의 뚜껑을 열고 숨겨져 있던 비보의 여러 가지를 바닥으로 꺼내 간다.

「이, 이건군요. 어디까지나 의학적인 공부를 위해서, 사전에 준비해 둔 것입니다만…

괴로운 변명을 거듭하면서 실롬이 늘어선 것은 약국에서 팔고 있는 귀여운 시판품의 무화과 관장 등에서는 결코 없었다.

업무용의 500밀리리터 들어간 글리세린액의 병에, 무골로 거대한 200밀리리터용 유리 관장기.

게다가, 모든 것을 누설 없이 받아들이기 위한 어른용 기저귀나, 상대를 강제적으로 M자 개각의 자세로 고정하기 위한, 거친 피제의 구속구까지가 차례차례로 모습을 나타낸다.

「굉장히, 의사가 되는 기만만하네…

늘어선 너무 본격적인 도구들을 많이 내려다보면서, 하이임은 얼음처럼 차갑고,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시선을 보내왔다.

하지만, 그 얇은 입술의 가장자리는, 조금, 조롱하는 것처럼 매달려 있었다.

「네, 네. 그러니까, 손쉽게 처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임의 섬세한 표정의 변화에도 눈치채지 못하고, 실롬의 가슴은 두근두근 두근두근으로 지금도 파열할 것 같아지고 있었다.

태어나 처음으로 소녀에게, 게다가 이 미소녀의 언니에게 관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유리 관장기의 굵은 노즐을 하이임의 깨끗한 항문에 삽입하고, 충분한 글리세린액을 관장하여 한심하게 똥을 흘린다.

그 배덕적인 광경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실롬의 머리는 완전히 끓고, 유정천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춤추는 실롬은 이때 아직 눈치 채지 못했다.

실롬과 하임 사이에는 하늘과 땅이 뒤집을 정도의 터무니없는 추억이 있었던 것이다.

앞서, 하이임은 확실히 「그 관장 플레이는 녀석, 나와 하고 싶어?」라고 말했다.

주어와 술어의 무서운 함정.

그녀가 제안한 「하고 싶다」라는 말의 주체.

그것은, 즉.....

[Phase.7] 착착할 생각과 가라앉는 의식

마루에 늘어선 요염하게도 매력적인 기구를 앞두고, 두 사람은 플레이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일단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앉아 하기로 했다.

긴박한 공기 속, 하임이 부엌에서 끓여 온 맛있는 홍차가, 2명의 머그컵으로부터 따뜻한 김을 일으키고 있다.

평소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신경이 쓰이는 언니의 행동에 감사하면서, 시롬은 마른 목을 촉촉하게, 그 향기로운 향기의 차를 한입, 또 한입과 목에 흘렸다.

「그럼, 이 도구의 사용법, 설명해 줄래?」

하임은 따뜻한 머그컵을 양손으로 감싸면서, 로텐션인 목소리로 바닥의 구속구를 가리켰다.

그 시선은 여전히 냉철하지만 어딘가 미지의 영역에 대한 호기심을 품고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 기뻐서 설명해요. 이거네요, 단지 상대를 묶을 뿐의 값싼 물건과는 다른데요"

실롬은 홍차 덕분에 조금 진정을 되찾고, 자신 안에 숨겨진 왜곡된 지식을 자랑하도록 열을 띤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다.

소녀에게 관장을 베풀겠다는 꿈의 무대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 시롬은 지금까지 이들을 사 모아도 그 사용 이미지를 뇌에서 여러 번 시뮬레이션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가죽 벨트는 수감자(관장되는 자)의 오른쪽 발목과 오른쪽 손목을 단단히 구부리고, 또 하나의 벨트로 왼쪽 발목과 왼쪽 손목을 똑같이 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장착하면 인간의 몸은 물리적으로 강제적입니다. 나의 M자 개각의 자세로 고정되어 버립니다.

실롬은 흥분을 숨길 수 없는 모습으로 몸짓을 흔들며 열 밸브를 흔들었다.

아름다운 하임의 신체가 그 구속구에 의해 완전히 열려 여성기나 엉덩이를 돌출되는 무잔한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그의 등근에는 속삭이는 쾌감이 달려난다.

「과연...

하임은 차를 조용히 입에 담고, 흠, 하고 납득한 것처럼 작게 수긍했다.

그 얼굴에는 무서워도 수치도 없고, 단지 담담하게 실롬의 해설을 머리 속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렇습니다.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이 200밀리리터의 유리 관장기와, 500밀리리터의 글리세린액의 조제 방법이에요. 이번은 처음의 플레이이기 때문에, 시판의 별로 없는 관장 따위로 간단하게 끝마칩니다 해서 버리는 것은,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모처럼이라면, 그...

실롬은 더 열을 담아 스스로의 이상으로 하는 완벽한 조합에 대해 역설을 거듭했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수많은 어리석은 책을 읽고 어어 도달한, 지극히 높은 관장 이론이었다.

“30퍼센트라는 농도는 시판되고 있는 무화과 관장과 비교하면 확실히 조금 얇습니다. 0밀리리터가 되면 체내에 보내지는 순수한 글리세린의 총량은 60밀리리터에 이르는 거예요. 덕분에 장벽을 너무 자극하지 않고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 밀리리터라는 압도적인 수분량으로 직장에는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강렬한 편의만이 습격하는 법 쌍이 되고 있습니다. 즉, 통증에 의한 고통이 아니라, 단지 순수하게, 한계를 넘은 편의만을 한계까지 맛 맞출 수 있는 처방이에요.

실롬은 단번에 뿌렸고, 자신의 멋진 계획에 취할 수 있도록, 수중의 홍차를 또 바삭바삭하게 마셨다.

건방진 언니의 하이임이, 배의 통증에 시달리지 않고, 단지 견디기 어려운 편의에 얼굴을 왜곡해, 자신의 눈앞에서 대량의 똥을 브리브리와 누설해 버린다.

그런 꿈 같은 결말이 곧 손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실롬의 머리를 더욱 미치게 한다.

「헤에… …

하임은 머그컵을 책상에 놓고, 감탄한 듯 포도라고 말했다.

그 눈동자의 안쪽에서, 수상한 빛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는 것에, 실롬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당연이에요. 이 정도 당연한 냄새이니까요. 자, 그렇게 정해지면 바로 준비를…

실롬은 일어나 관장액의 제작을 시작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시야가 급격히 엉망이 왜곡되었다.

"……어라?"

왠지, 아까부터 아무래도 의식이 날 것 같은 것이다.

머리가 급격하게 무거워지고, 납에서도 박힌 것처럼 사고가 전혀 정리되지 않게 된다.

신체의 심으로부터 급격한 탈력감이 밀려, 자랑의 정중한 말투를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의식이 혼탁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시롬? 괜찮아?」

하임의 목소리가 마치 깊은 수저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멀고 흐려 들린다.

「뭐, 왠지… … 갑자기, 아타마가…

실롬은 자신의 책상에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평행감각이 사라진 팔은 하늘을 자르고 그대로 상반신이 융단의 바닥으로 무너졌다.

하임이 끓여준 맛있는 차.

그 감미로운 향기의 뒤에 숨겨져 있던 것에, 실롬의 둔마해 가는 뇌는 드디어 도착하지 않았다.

시야가 급속하게 암전해 가는 가운데, 실롬의 눈에 마지막에 비친 것은, 자신을 차갑게 내려다보는, 하이무의 차가운 눈동자였다.

항진술도 없고, 실롬의 의식은 깊은 어둠의 바닥으로 완전히 떨어졌다.

[Phase.8] 반전한 악몽

실롬은 매우 따뜻한 꿈을 꾸고 있었다.

아직도 자신이 지금보다 훨씬 작아서 세계가 더 단순했을 무렵의 어린 시절의 기억의 단편이다.

황혼의 공원의 모래장에서, 자신과 하임은 나란히 앉아, 진흙 투성이의 손으로 큰 산을 만들고 있었다.

가라앉는 태양의 빛이 세계를 오렌지색으로 물들여 간다.

옆에 있는 하임은, 지금과 변함없는 조용한 눈동자로 실롬을 바라보고, 작은 손으로 실롬의 진흙을 상냥하게 지불해 주고 있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는 것은 없고, 단지 가득한 시간이, 거기에는 흐르고 있었다.

기분 좋은 따뜻함에 휩싸이면서, 시롬은 그 행복한 꿈의 여운에 계속 잠기고 싶었다.

그러나, 그 온화한 저녁 경치는, 점차 발밑으로부터 균열되도록 해 붕괴를 시작해 간다.

따뜻했을 터의 공기는 급속히 그 열을 잃고, 대신 기묘한 냉기와 피부를 찌르는 위화감이 실롬의 의식의 표층으로 기어 올라왔다.

꿈의 경계선이 모호해지고, 깊은 잠의 바닥으로부터, 현실의 감각이 차분히 끌어올려져 간다.

완전하게 일어나는 한 걸음 앞, 의식의 혼탁한 어둠 속에서, 시롬은 자신의 신체가 놓여져 있는 이상한 상황을, 피부의 감각만으로 파악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우선 느낀 것은 등에 닿는 시트의 부드러운 느낌이었다.

자신의 방의 이불 위에 누워있는 것과 같은, 익숙한 천의 부드러움.

하지만 그 위에 누워 있는 자신의 신체는 너무 심서하지 않는다.

상반신은 벗겨져 있어, 하반신도 바지를 빼앗겨, 얇은 속옷의 팬츠 1장만이 되고 있는 심세한 해방감이,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방의 공기에 의해 생생하게 전해져 왔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했던 것은 사지의 자유가 완전히 빼앗겨 있다는 사실이었다.

뭔가 하려고 팔을 움직이려고 한 순간, 손목 주위에 몰입하는 딱딱하고 차가운 느낌이 강렬한 저항이되어 실롬의 움직임을 막았다.

그것은 오른쪽 손목과 그대로 같은 쪽 오른쪽 발목을 견고하게 묶고있는 가죽 벨트의 느낌이었다.

게다가 동시에, 왼쪽의 손목과 왼쪽의 발목도, 똑같이 튼튼한 무엇인가 붙어 있다.

팔을 늘리려고 하면 다리가 당겨지고 다리를 늘리려고 하면 팔이 고정된다.

그 구조 때문에 실롬의 신체는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가랑이를 크게 갈라진 무방비한 자세——즉, 강제적인 M자 개각의 상태로, 이불 위에 완전히 고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사고는 녹이 걸린 것처럼 심하게 둔하고 아직.

왜 자신은 바지 1장으로, 이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묶여 있는 것일까.

아까까지 하이임과 즐겁게 홍차를 마시고 있었을 것의 기억이 흠뻑 퍼즐 조각처럼 뇌내에서 떠오르고 있다.

실롬은 무거운 납을 넣은 것 같은 눈꺼풀을 거절반응을 보이는 신체를 꾸짖으면서 천천히 무서운 두려움을 열기 시작했다.

희미하게 열린 시야의 앞에, 처음으로 은은한 빛이 꽂는다.

익숙한 자신의 방의 천장이, 서서히 윤곽을 분명하게 시키면서 비추어져 갔다.

그리고, 그 시야를 차단하도록 하고, 위로부터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인물의 그림자가 왜곡된 세계의 중심에 나타난다.

"안녕, 실롬"

상공에서 내려온 것은, 평소와 전혀 변하지 않는, 억양 없는 로텐션인 누나의 목소리였다.

그 인사의 목소리를 고막에 받은 순간, 실롬의 뇌내에 전류가 달려, 모든 기억과 감각이 단번에 하나로 이어졌다.

자신이 지금, 어떤 모습을 시키고 있는 것인가.

오른쪽과 오른쪽, 왼쪽과 왼쪽 손발을 짊어지고, 무잔에 엉덩이를 밀어내고 있는 이 자세가, 도대체 어떤 도구에 의한 것인가.

그건 다름없고, 자신이 하임을 굴복시키기 위해 의기양양하게 옷장에서 끌어내, 그 구조를 자랑스럽게 역설한, 그 강제 M자 개각의 구속구 그 자체였다.

실롬은 순식간에 완전히 각성하고, 전신의 피가 역류하는 공포와 굴욕의 충격에 단지 눈을 뜯고 경직할 수밖에 없었다.

[Phase.9] 서류 관찰과 잔인한 현실

실롬은 호흡을 거칠게 만들고 몸을 격렬하게 비틀면서 눈앞의 광경을 부정하려고 필사적으로 외쳤다.

「어, 무슨 일입니까, 이것! 나를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하지만, 하임은 그 필사적인 질문을 의도하지 않고, 실롬의 모습을 마치 노변의 돌에서도 바라보는 것 같은 서리가 내린 눈동자로 내려다보고 있다.

「헤에…

그녀는 실롬의 수치를 무시하고, 담담하고, 어딘가 심저 어리석은 듯한 어조로 포츠리와 중얼거렸다.

「웃……! 그, 그, 그…

실롬은 얼굴을 새빨갛게 하고, 필사적인 형상으로 변명을 늘어놓았다.

자신이 애용하고 있는 낡은 서류가, 하이임의 냉철한 시선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뇌가 구워지는 듯한 굴욕을 느낀다.

"흠……?"

하임은 실롬의 괴로운 변명을 듣고도, 단지 코로 웃는 것 같은 상망을 칠 뿐이었다.

"게다가 작은 주제에 텐트 치고 있다..."

「...아...

말해 처음으로 눈치챘다.

실롬은 발기하고 있었다. 작은 성기가 서류 속에서 삐삐 하늘을 바라보던 것이다.

「아침에 서서 녀석...

건강한 소년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생리 현상으로, 성적인 자극이나 꿈과는 무관하게 수면 중에 남근이 발기하는 것.

「이, 이것은 나가 아니어도, 누구라도 자고 있으면 마음대로 되는 녀석입니다...

「응. 시롬이 자고 있을 때, 서류의 단지 부풀어 오른 부분이, 딱 텐트 붙이는 순간 보고 있었고, 녹화도 했으니까」

「뭐, 녹화는, 뭐 생각하고 있나요, 이 변태 누나...

실롬은 수치의 너무 안면을 새빨갛게 물들여 구속구에 연결된 손발을 찡그리며 날뛰게 하면서 목소리를 거칠게 하여 필사적으로 말했다.

「별로. 의사씨 놀이 기록용이고, 시롬의 그 한심한 아침 서의 증거를 남겨 둘 뿐이니까」

하임은 여전히 억양이 없는 로텐션인 목소리인 채 차가운 눈동자로 실롬의 가랑이를 다시 보았다.

강제적인 M자 개각에 의해, 실롬의 신체는 무방비인 그대로를 드러내고 있다.

꽉 찬 팬티 옷감 너머로, 엉덩이의 부드러운 윤곽이나, 중앙의 불모호한 푹신한 부풀어짐이, 하이임의 시야에 이것이라도 할까 구워져 있었다.

「후후, 잘 보면...

하임은 일부러 답답하게 코끝으로 공기를 냄새맡는 행동을 하고, 잔혹할 때까지 무기질적인 톤으로 쫓아냈다.

실롬의 심장이 굴욕으로 망가질 것 같다.

깨끗하게 유지할 생각이었던 속옷의 숨겨진 얼룩을 지적한 것으로 그는 자신의 자존심이 진흙처럼 더러워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굴욕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아, 여기에는 갈색 근육도 있다. 이거...

하임은 손가락 끝으로, 브리프의 천에 스며든 낡은 얼룩을 무원하게 가리켰다.

실롬은 전신으로부터 피의 기분이 끌려 다음 끓는 듯한 열기에 습격당한다.

자신의 가장 비소하고, 가장 숨기고 싶었던 오점이, 누나라는 절대적인 존재에, 게다가 제일 보이고 싶지 않은 각도로부터 철저하게 유린되고 있는 것이다.

부끄러움과 자신에 대한 혐오감, 그리고 언니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열등감이 섞여 실롬의 눈동자에서 견딜 수 없는

굴욕의 눈물이 흘렀다.

「야, 그만두고... ... 보지 말고...

썩은 목소리로 간청하지만, 하임은 서리가 내린 웃음을 깊게 할 뿐이다.

「그것보다, 이것은 무슨 일입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이임에 관장을...

실롬은 혼란스럽게 자신의 본래의 목적을 재확인하도록 끈적거렸다.

그러나 하임은 차갑고 잔인한 한마디로 그것을 막았다.

「... ... 안타, 뭔가 착각하지 않아?」

"에.....?"

실롬의 사고가 정지한다.

「어, 무슨 일입니까, 하임. 이야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실롬의 시야가 공포로 흔들린다.

하임은 구속구에 고정된 실롬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냉담한 목소리로 담담하게 동생의 환상을 찢어달라고 말했다.

「누가 실롬에게 관장된다고 말했어?...

하임의 말의 의미를 이해한 순간, 실롬의 등근을 얼어붙는 전율이 뚫렸다.

언니가 자신의 계획을 거꾸로 잡고 자신을 실험대로 삼키려고 하고 있다.

실롬의 착각 등, 옛날에 모두 전망이었다고, 그 냉철한 미소가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Phase.10]역전의 불합리함과 다가오는 공포

하임의 입에서 발한 너무 비정한 관장 선고는 실롬의 뇌의 처리 능력을 완전히 초월하고 있었다.

자신이 관장을 하는 측의 실험대가 된다.

그 사실을 이해하려고 한 순간, 실롬의 머리 속은 격렬한 혼란과 맹렬한 초조감으로 엉망이 되었다.

「에...

실롬은 양손 양 다리를 구속구에 묶인 채 마치 그물에 걸린 물고기처럼 필사적으로 몸부림치고 미친 듯 외침을 들었다.

오른쪽의 손목과 발목, 왼쪽의 손목과 발목이 각각 강고하게 구겨져 있기 때문에, 날뛰면 날뛰는 정도로, 얇은 서류 1장에 싸인 자신의 엉덩이와 항문이, 하이무의 눈앞에 크고, 무잔에 돌출되는 형태가 되어 버린다.

그 자세 자체의 부끄러움과 불합리함에, 실롬의 심장은 미친 듯한 속도로 맥박을 치고, 차가운 땀이 전신에서 폭포처럼 뿜어내고 있었다.

원래, 시롬의 지금까지의 상식 속에서는, 관장 플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없이「남자가 여자에 대해 베푸는 것」이었던 것이다.

사실, 그가 자신의 방의 옷장의 안쪽에 소중히 숨기고 있던『어려운 책』의 여러가지라도, 혹은 PC의 뒤에 숨겨놓고 싶은 듯한 게임의 세계에서도, 언제나 강제적으로 구속되어 엉덩이에 기구를 삽입되어 울음소리가 들린다.

소년인 자신이, 되는 쪽의 약자가 된다는 발상은, 지금까지의 실롬의 인생 속에 미진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어째서...

실롬은 스스로의 자존심의 붕괴를 막으려고 눈물로 하임을 강하게 노려보면서 평소 정중한 어조를 어떻게 짜내고 격렬하게 항의했다.

남자로서의 프라이드도, 언니에 대해서 계속 유지하고 있던 우위성도, 이제 이 굴욕적인 M자 개각의 자세의 앞에 모두 부서져 부서지려 하고 있다.

여자를 굴복시켜 그 엉덩이에서 똥을 새는 꿈의 도구가 설마 그대로 자신을 묶어 자신의 항문을 유린하기 위한 흉기로 변모한다니 악몽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었다.

"재미있지 않아.... 그럼, 시롬이 스스로 말했지요? "기념해야 할 첫 플레이는 200밀리리터의 농도 30퍼센트의 최상의 처방으로 흩어지고 싶다"고"

하임은 실롬의 흐트러진 모습을 서늘한 눈동자로 바라본 채, 미진도 로텐션인 상태를 무너뜨리지 않고, 담담하게 바닥에 놓인 거대한 유리 관장기를 들었다.

그 가늘고 아름다운 손가락 끝이 무골 의료기구의 차가운 유리통에 닿는다.

그녀의 표정에는, 분노도 흥분도 없고, 단지 앞으로 시작되는 미지의 실험을 앞으로 한, 조금 할 정도로 냉철한 호기심만이 조용히 묵고 있었다.

「그, 그것은 하임에 대해 말한 말이야, 내 관장 처녀를 흩뜨리는 의미에서는...

실롬은 공포로 얼굴을 끌어당겨 필사적으로 허벅지를 닫으려고 했지만, 튼튼한 가죽제 구속구는 비싯과 소리를 내고 고기에 박혀, 그에게 더한 무잔한 M자 개각을 강할 뿐이었다.

브리프의 틈새로부터 완전히 노출된 엉덩이의 둥근 부분이, 하이임이 가지는 유리 관장기의 선단을 앞에 두고, 공포로 작게 경련하도록(듯이) 빽빽하게 떨고 있었다.

[Phase.11]섬격의 강초

실롬은 눈물로 목을 좌우로 격렬하게 휘두르며 잠자리를 치도록 허리를 비틀어 깎아 내렸다.

하지만, 손목과 발목이 각각 같은 쪽에서 꽉 묶인 M자 개각의 자세에서는, 아무리 뻣뻣해도 엉덩이가 이불 위에서 허하게 튀는 것만으로, 중요한 하임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결코 할 수 없었다.

"잠깐 날뛰지 마세요...

하임은 손에 넣은 큰 물건의 유리 관장기를, 마치 위험한 장난감으로 취급하는 것처럼 가볍게 흔들면서, 여전히 서늘하고 억양이 없는 로텐션인 목소리로 실롬을 핥았다.

그 시선은 공포에 왜곡되는 동생의 얼굴에서, 더욱 아래쪽으로 천천히 이동해 간다.

"그런데, 실롬. 실롬이 자고 있는 동안 내가 옷을 벗게 했는데, 무엇을 위해서 이 서류만은 헛소리를 했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까?"

하임은 실롬의 엉덩이의 둥그스름을 파츠파츠에 감싸고 있는, 그 노란 바둑 낡은 서류의 천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물어왔다.

「에...

실롬의 뇌 내에 새로운 당황과 불길한 예감이 달린다.

자신의 자존심을 철저히 꺾기 위해서 굳이 부끄러운 브리프 모습을 노출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봐? 실롬이 의사 놀이를 잘 공부하고 있다면, 곧 알 수 있을 거야」

하임은 작은 목을 기울여 생각하는 시간을 주는 것처럼 말을 구분했다.

「그, 그건...

실롬은 한 줄의 소망을 걸듯 정중한 어조로 가장 무해할 가능성을 말해 보았다.

하지만, 하임의 반응은 차가웠다.

"벗어나"

짧게 한마디로 버린다.

「그럼, 기저귀를 끼우기 전에, 쿠션 대신 해 두기 위해서입니까...

실롬은 얼굴을 더욱 붉게 하면서 다음 수치에 묻힌 전개를 예상해 대답했다.

"그것도 벗어나"

하임의 눈동자에는, 동생의 특이한 해답을 어딘가 즐기고 있는 것 같은, 바닥 어두운 색의 빛이 머물고 있었다.

「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의지하지 말고 가르쳐 주세요, 하임!」

더 이상의 굴욕적인 퀴즈를 견디기 힘들고, 시롬은 구속구의 가죽 벨트를 기치기치와 울리면서 외쳤다.

"답은 모르겠어?"

하임은 조용히 손에 넣은 유리 관장기를 근처의 책상 위에 놓았다.

「가르쳐 줄까?」

그렇게 중얼한 직후, 하이임은 양손을 가슴 앞에서 맞추고, 집게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의 2개를 단단히 갖추어, 마치 닌자가 표시를 짜는 것 같은 소름 끼치는 자세를 만들었다.

그것은, 일본의 아이들이 일상의 악희로서 이용하는, 그 바쁜 손의 형태였다.

「강초!!」

하임의 날카로운 목소리와 동시에, 그녀의 양손의 손가락 끝이, 목표로 맑은 일격이 되어 하늘을 찢었다.

즈신!!

「응!?!??」

실롬의 목의 안쪽에서 말이 되지 않는 비명이 끌려 나왔다.

처음에 자신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실롬의 뇌는 곧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엉덩이의 중앙, 바로 그 한점을 향해, 지구가 격돌한 것 같은 굉장한 체감이 실롬의 전신을 뚫었다.

엉덩이의 안쪽 바닥이 안쪽에서 화려하게 폭발한 것 같은 격렬한 진동이 달려, 두개골의 심까지 덜컹거리는 감각에 습격당한다.

시야가 새하얗게 되어 눈으로부터는 치카치카로 한 별이 튀어나오는 강렬한 충격이 뇌수를 직접 긁어내었다.

그 여파는 머무르는 것을 모르고, 엉덩이의 피부를 뚫고, 그대로 배의 최심부, 직장의 벽을 직접 주먹으로 때려 붙은 것 같은 중고한 충격이 되어 주근깨와 울려퍼진다.

그것은 절대로 절상이나 찰과상과 같은 날카로운 "통증"이 아니었다.

단지, 태어나 처음 경험하는, 너무 압도적이고, 너무 파괴적인 엉덩이에의 충격이었다.

시간의 감각이 늘어나는 가운데, 실롬의 뇌는, 자신의 엉덩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차근차근 정확하게 파악하기 시작해 간다.

낡은 브리프의 천을 매개로 하여, 하이임의 딱딱하게 갖추어진 2개의 손가락 끝이, 무방비였던 자신의 항문에 용서 없이 밀어넣고 있는 것이다.

기치, 기치, 엉덩이의 고기가 한계까지 펼쳐져 강렬한 압박감이 항문 주위를 유린해 간다.

여기서 처음으로 실롬은 자신이 하임의 손가락으로 '강초'를 먹었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이해했다.

「아, 하..... 아우...

실롬의 입에서 굴욕과 충격에 바른 신음성이 새어 나온다.

의식이 혼탁한 상태에서 깨어나, M자 개각이며, 심지어 완전히 방심하고 있던 그의 항문에 있어서, 갑자기 발사된 이 강초의 자극은, 통상의 몇 배의 파괴력을 가지고 습격당하고 있었다.

방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힘없이 느슨해져 있던 항문의 점막이, 하임의 손가락의 힘에 의해 강제적으로 서류마다 안쪽으로 밀려 들어, 미체험의 격렬한 감각에 떨고 있다.

칸쵸를 당했다는 그 한점의 사실만으로, 실롬의 남자로서의 존엄은 완전히 목단미진에 박살나고 있었다.

강쵸의 강렬한 여운이 지금 항문 주위에서 탄탄한 열을 가지고 소용돌이 치고 있다.

「실롬은 소년의 주제에 칸쵸되었는데, 처음이야? 약액을 사용한 본격적인 관장 처녀를 흩뿌리기 전에 먼저 손가락으로 칸쵸 처녀를 흩어주려고 했는데...

하임은 실롬의 항문에 깊게 박혀 있던 손가락 끝을, 즈부,와 소리를 내도록(듯이) 해 천천히 뽑았다.

그리고 호흡을 잊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동생의 얼굴을 로텐션하면서도 어딘가 만족스럽게 내려다봤다.

「이것으로, 조금 전의 질문의 대답을 알았지?」

하임은 자신의 손끝을 바라보면서, 그 이유를 담담하게 씨름하게 한다.

「나마의 항문에 손가락을 찔러 넣는 건, 그것은 칸쵸가 아니고, 단지 손가락의 항문 삽입. 그러니까, 그 낡은 브리프의 천이 불의치고 강렬하게 항문에 박혀, 아픔과는 다른, 말할 수 없는 강렬한 자극이 되는 거야.

하임의 해설은 실롬에게 있어서 탁월한 정신적 폭거였다.

자신이 끼고 있던 브리프 그 자체가 자신의 항문을 가장 효과적으로 유린하기 위한 흉기로서 하이임에 완벽하게 이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너무 충격과 엉덩이에 남는 강초의 생생한 여운에, 시롬은 단지, M자 개각의 자세인 채, 허하와 거친 숨을 내쉬면서 절망에 몸을 가라앉힐 수밖에 없었다.

[Phase.12] 항문에 새겨진 강초의 잔향

누나라고는 해도, 진정한 소녀인 하임으로부터 강초를 먹었다는 사실은, 실롬의 정신을 근저로부터 흔들고 있었다.

실롬의 지금까지의 상식에 있어서, 강초라는 악희는, 학교의 복도나 진흙 투성이의 교정에서 소년끼리가 망설이지 않는 의지를 맞붙고 맞대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걸, 이 정도까지 정돈된 얼굴을 한 아름다운 쌍둥이의 언니에게, 게다가 여기까지 완벽한 의심으로 받는다니, 굴욕과 부끄러움으로 머리가 이상해질 것 같았다.

하임의 굉장한 강초 돌입에 의해, 낡은 브리프의 얇은 천은, 실롬의 엉덩이의 균열의 깊고, 바로 항문의 섬세한 점막의 틈으로 가차없이 구이구이와 강렬하게 휘말린 채로 되어 있었다.

엉덩이 구멍이 이물질로 펼쳐져 있는 생생한 위화감에 시롬은 눈물을 흘리며 허하와 거친 숨을 내쉴 수밖에 없다.

「아, 서류가 줄어든 채로 되어 버리고 있어. 조금 당겨줄게」

하임은 변함없이 감정의 기복이 없는 로텐션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항문의 최심부에 강고하게 박혀 있던 브리프의 천의 가장자리를 손가락 끝으로 잡고, 단번에 위로 즐겁게 잡아당겼다.

즈츄, 와 천이 점막으로부터 벗겨지는 미묘한 소리가 울리는 것과 동시에, 실롬의 항문의 주위에는, 지금까지 맛본 적이 없는 듯한 조와조왓으로 하는 강렬한 신경의 파문이 달려 갔다.

마찰의 자극과 단숨에 공기에 노출된 피부의 감각이 섞여, 너무의 배덕적인 기분에 시롬의 신체가 비쿤과 크게 튀어오른다.

「히아...

아쉬운 목소리를 올리면서, 실롬은 자신의 체내의 변화에 공포했다.

믿을 수 없는 것에, 칸초를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그 굉장한 충격의 위열이 천천히 엉덩이의 안쪽에 퍼져, 실롬의 완고한 마음을 녹슬고 감미에 녹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그 일이었다.

오른쪽과 오른쪽, 왼쪽과 왼쪽 손발을 가죽 벨트로 강고하게 연결된 강제 M자 개각이라는 항문을 한 점의 숨기지 않고 완전히 무방비에 노출된 강초를 위한 최고의 자세.

몸을 지키기 위한 방벽은, 얇은 브리프 단지 1장만이라고 하는 너무 심서 없는 모습.

그리고,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깨어난 직후라고 하는, 더 이상 없는 완벽한 타이밍에서의 불의타의 일격.

이러한 양조건이 훌륭하게 겹쳐진 것으로, 하이임의 손가락 끝이 가져온 충격은, 실롬의 미숙한 항문의 신경으로 한계를 넘은 뇌가 떠오르는 쾌감으로서 새겨져 버린 것이다.

엉덩이의 구멍이 쿵쿵쿵과 마음대로 물결치듯 딱딱하게 경련해, 그것에 연동하도록(듯이), 브리프의 앞 부분에 들어간 작은 꼬마가, 차근차근 열을 가지고 발기하게 딱딱해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왜 이런 굴욕적인 고문을 받고 있는 것인데, 자신의 성기가 파렴치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가.

실롬은 자신의 신체의 배신에 격렬한 초조함과 절망을 느끼지 않고는 있을 수 없었다.

「아-…. 역시…

하임은 뽑아낸 천의 더러움을 가만히 바라보고, 실롬의 얼굴의 바로 앞에 그것을 찌르게 하고, 담담하게 그 사실을 자극해 왔다.

「뭐……! 아, 우, 시끄럽습니다!

실롬은 얼굴을 귀 뒤까지 새빨갛게 물들여 필사적으로 목을 흔들며 시선을 벗어나려 했다.

그러나 하임의 용서가 없는 말에 의한 괴롭힘은 더욱 그 안쪽으로 밟아 온다.

"이것은, 역시 똥의 냄새네. 굉장히 쿠사이야, 실롬"

하임은 서류 옷감에서 손가락을 떼자 이번에는 실롬의 항문을 직접 찌른 자신의 양손의 손가락 끝을 코 끝에 가까워 쿤쿤과 주저없이 그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이 팬츠, 소년의 냄새가 아니고, 완전히 똥의 냄새가 스며들고 있다. 시롬, 혹시 변비라도 하고 있는 거야?」

쌍둥이의 언니로부터, 자신의 엉덩이의 구멍으로부터 옮긴 똥의 냄새를 직접 지적되어, 실롬의 존엄은 완전히 재로 돌아갔다.

완벽하고, 시원하고,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하임의 앞에서, 촉촉한 서류에 똥의 근육을 붙여, 손가락에 그 냄새까지 남겨 버리고 있다고 하는 궁극의 치욕.

실롬은 단지, 새빨갛게 된 얼굴에서 눈물을 흘리며, 긴박된 자세인 채, 앞으로 시작되는 프로덕션 관장 플레이에 대한 공포에 흔들리고 계속 떨릴 수밖에 없었다.

[Phase.13]가위로 서류를 잘라 직시되는 항문

엉덩이의 안쪽에 남는 강렬한 강초의 여운과 손끝에서 옮겨진 똥의 냄새를 지적된 궁극의 치욕에 의해, 실롬의 정신은 완전히 피곤했다.

하지만, 하임의 용서가 없는 냉철한 지배는, 이같은 곳도 풀리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

하임은 근처의 학습 책상 서랍에서 공작용의 일단 크고 예리함이 좋은 것 같은 가위를 꺼내 금속음을 작게 챠키리와 울리면서 침대 옆으로 돌아왔다.

「뭐, 뭐를...

실롬은 공포에 눈을 뜨고 구속구에 연결된 손발을 필사적으로 두드리게 했지만, 그때마다 가죽 벨트가 아슬아슬하게 고기에 박히기만 했다.

"그래서... 실롬이 스스로 조달한 이 구속구, 오른쪽과 오른쪽, 왼쪽과 왼쪽을 단단히 고정하고 강제적으로 M자 개각의 자세로 하는 뛰어난 것이 아니다. 그 탓에, 엉덩이 를 완전하게 열린 채, 서류를 보통으로 아래로 밀어 벗을 수가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

하임은 서늘하고 억양이 없는 로텐션인 목소리인 채, 파트파츠에 담긴 실롬의 서류의 겨드랑이의 솔기에, 차가운 가위의 칼날을 주저없이 꽂아 왔다.

쵸키, 쵸키, 딱딱한 천이 단재되어 가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실롬의 귓가에 용서없이 닿는다.

「그만둬...

실롬의 간청을 무시하고, 하임의 가위는 좌우의 허리둘레를 깨끗이 찢고, 마지막은 가랑이의 천을 두개로 분단했다.

파사리, 힘없이 바닥에 떨어지는 천 조각.

마침내 실롬을 숨기고 있던 마지막 방벽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의 가장 파렴치한 부분이 방의 차가운 공기에 단번에 노출되게 되었다.

「헤에...

하임은 가위를 책상에 두자 무방비로 벗겨진 실롬의 가랑이로 그 냉철한 시선을 곧게 떨어뜨렸다.

거기에는 치욕과 공포에 떨리면서도, 첫 체험의 강렬한 항문 자극에 의해 완전히 흥분해, 위를 향해 진드기로 딱딱해지고 있는 실롬의 작은 성기가, 불쌍하게 맥박하고 있었다.

「치, 다르네요! 이것은, 내 의지가 아니고... ... 신체가 마음대로, 그.....!

실롬은 안면을 끓인 것처럼 새빨갛게 물들여 눈물로 격렬하게 목을 흔들며 정중한 어조의 변명을 외쳤다.

하지만, 하이임의 관심은, 그 작은 성기보다 더 안쪽에 있는, 가장 숨겨진 최심부로 향하고 있었다.

「성기도 있지만, 역시 실전은 이 항문이지. 대단해...

하임은 실롬의 엉덩이의 균열을 손가락 끝으로 조금만 좌우로 밀어 펼쳐 노출된 섬세한 항문의 모습을 마치 이과 실험 동물에서도 관찰하는 것 같은 상세한 소감을 들기 시작했다.

「아, 야...

실롬은 엉덩이의 구멍에 달리는 소름 끼치는 감촉에 몸부림치고, 허리를 띄우려고 했지만, 고정된 손발 탓으로, 보다 선명하게 항문을 하임의 눈앞에 내밀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조금 전의 칸쵸의 자극 탓에, 엉덩이의 안쪽에 있는 똥이, 곧 거기까지 내려와 있는 것이 둥근 보인다.실롬의 항문, 조임이 나쁜 바보 같은 구멍이 되어 있어. 앞으로 200밀리리터의 글리세린액이 흘러들어 오는데, 이렇게

하임의 무자비한 지적이 실롬의 뇌 내에 치명적인 공포를 심는다.

「그런…

실롬은 필사적으로 허세를 내리려고 했지만, 하이임은 단지 「흠…

[Phase.14] 제형화된 처방과 직장으로의 절단

실롬의 가장 숨겨진 최심부인 항문을 용서 없이 관찰한 종합하임은 마치 일상의 작업을 담담하게 해내는 것처럼 학습책상 위에 펼쳐진 도구로 돌아갔다.

그녀는 준비하고 있던 세면기를 꺼내자, 실롬이 옷장에서 꺼내 온 업무용의 500밀리리터 들어간 글리세린액의 병을 기울였다.

토포토포와 섬뜩한 끈기가 있는 무색 투명의 액체가 정확하게 60밀리리터 잰 채 세면기로 쏟아져 간다.

계속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던 수돗물을 140밀리리터, 거기에 주저없이 첨가했다.

"실롬이 말했듯이, 이것으로 총 200밀리리터. 농도 30%의 특제 글리세린 관장액의 완성"

하임은 유리봉을 사용하여 세면기 안의 액체가 완전히 균일해지도록 샤카샤카와 무기질적인 소리를 내며 잘 저어 준다.

눈앞에서 자신을 유린하기 위한 무서운 관장액이 냉철하게 조합되어 가는 광경을 바라보면서 실롬은 공포로 치아의 뿌리가 덜컹거리는 것을 억제할 수 없었다.

「야, 역시 멈추어 주세요 하임! 그런 대량의 관장액, 내 몸에 넣는다니 절대로 미치고 있습니다! 독입니다!」

"미치지 않아. 실롬이 스스로, 이 농도가 제일 배가 아프지 않아, 강렬한 편의만을 즐길 수 있는 극상의 관장 처방도 역설한 것이 아니다"

하임은 조금도 표정을 바꾸지 않은 채, 이번에는 무골로 거대한 200밀리리터용 유리 관장기를 손에 들었다.

그리고 세면기에 모인 30퍼센트의 관장액 속으로 팁을 담그고, 쥬우, 와 심한 소리를 내고 주사기를 당기고, 200밀리리터 모든 관장액을 유리통 안으로 단번에 빨아들였다.

묵직한 중량감을 가지는, 투명한 관장액이 가득한 유리 관장기.

하임은 그 차가운 유리제 노즐의 선단에, 윤활용의 로션을 충분히 손가락으로 칠해, 늘어뜨린 한 비추한 빛을 갖게했다.

「자, 실롬. 의사씨 굉장히 실전을 시작할까. 앞으로 안타의 엉덩이 구멍에, 이 대량의 글리세린액을 모두 부어 잊을 수 없는 관장해 줄 테니까」

하임은 유리 관장기를 양손으로 제대로 유지하면 강제 M자 개각의 자세로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된 실롬 엉덩이 사이로 천천히 무릎을 꿇고 다가왔다.

그리고, 로션으로 젖어 젖은 유리 관장기의 선단의 노즐을, 삐삐삐와 무서워하도록 경련하고 있는 실롬의 항문의 한가운데로, 냉혹하게 딱 맞게 향했다.

「히훗……!?」

차가운 노즐의 감촉이 항문의 점막에 닿은 순간, 실롬은 등근을 강렬한 전율이 뛰어나 비명 같은 목소리를 올렸다.

아직 관장은 삽입되어 있지 않다.

언제든지 이 관장을 항문에 삽입하고, 약액을 주입하여, 실롬의 장내를 절대적인 편의로 채우고, 억지로 관장을 완료시킬 수 있는 상태인 채, 하이임은 움직임을 멈추고 실롬의 눈물의 얼굴을 내려다봤다.

「…

남자인데 관장된다니…

실롬은 스스로의 미경험과 공포를 감싸 숨기지 않고 내뿜고 정중한 어조를 유지하면서 필사적으로 용서를 청했다.

지금까지 책이나 게임 속의 소녀들이 울음소리며 관장당했던 그 공포를 지금 바로 자신이 몸으로 체험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지식만은 있는데, 진짜 관장은 처음이야. 흠… …

하임은 실롬의 초조함과 공포를 부추기듯이, 꽤 드 S같고, 찌르는듯한 낮은 로텐션의 목소리로 말 책임을 거듭해 왔다.

「최악입니다…

"부끄러움으로 죽는 사람은 없으니까…. 단지, 한계까지 똥을 새고 싶어질 뿐. 이봐, 실롬. 만약 더 이상 이 노즐을 안쪽으로 밀어넣고 싶지 않아서, 지금 관장되는 것을 용서해 주었으면 한다면……"

하임은 실롬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매우 잔인하고 감미로운 함정 같은 제안을 말했다.

「『언니, 저에게 관장해 주세요』라고, 귀여운 목소리로 나에게 몰래 봐 봐.

「뭐……!?」

실롬은 너무 정신적 수치의 요구에 말을 잃었다.

언제나 자신을 내려다보는 언니를 '언니'라고 부르는 것인지 자신으로부터 '관장해 주세요'라고 간청하라는 것이다.

그런 굴욕적인 대사, 입이 찢어도 말할 리가 없었다.

「말할 수 없어. 그럼, 용서 없이 관장을 진행할게」

하임은 차갑게 말하자 항문으로 향하고 있던 유리 관장기의 노즐에 차분히 체중을 걸고 똑바로 밀어붙였다.

　누츄릿!

「응 있어!?」

젖은, 그리고 고기가 강제적으로 펼쳐지는 소리가, 조용한 방에 생생하게 울려퍼진다.

로션의 미끄러짐을 수반하면서, 굵은 유리 관장기의 선단의 노즐 부분이, 방심해 하고 있던 실롬의 항문의 안쪽으로, 전혀 저항 없지만, 강렬한 이물감의 자극을 수반해 즈브즈브와, 확실히 밀어 갔다.

[Phase.15]굴복의 간청과 냉철한 절단선

'누츄릿'이라는 촉촉한 고기의 마찰음과 함께 로션으로 젖은 굵은 유리 관장기의 노즐이 실롬의 무방비한 항문 안쪽으로 더욱 깊게 밀려 간다.

그것은 결코 날카로운 칼 같은 통증이 아니었지만, 미성숙한 실롬 엉덩이의 점막을 용서 없이 펼쳐 직장의 벽을 안쪽에서 강렬하게 압박하는, 태어나 처음 체험하는 미지의 중량감이었다.

이제 더 이상 노즐을 진행할 필요는 없다.

하임의 얇은 손가락 끝이, 유리 관장기의 말단에 있는 주사기(누른 아이)에 확실히 걸려 있어, 그녀가 조금이라도 거기에 힘을 담으면, 지금도 200밀리리터의 차가운 글리세린 관장액이, 실롬의 체내에 단번에 빠져든다.

실롬은 책에서 읽은 지식으로서 글리세린 관장액이 직장에 주입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다.

일단 그 무색 투명의 화학약품이 체내로 흘러들면 직장의 점막은 맹렬하게 자극되어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한계를 넘은 강제적인 편의가 일어난다.

200밀리리터라는 양은 결코 배를 빵빵에 부풀리는 물리적인 양이 아니다.

하지만 그 30퍼센트라는 절묘한 농도가 초래하는 격렬한 글리세린 반응은 실롬의 체내에 쌓여 있는 똥을 미친 듯이 불러 일어나 일순간에 '똥 누설 확정'의 지옥으로 그를 밀어내기에 충분한 위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관장된다 = 하임 앞에서 브리브리와 똥을 새고 완전 패배한다.

그 최악의 미래가 뇌리를 뒤쫓아, 실롬은 공포와 초조감으로 머리가 어떻게 꽤 보였다.

"무슨 일의 시롬? 그렇게 겁먹고, 엉덩이 구멍을 큐큐와 조여 버려서...

하임은 주사기에 손가락을 걸린 채, 미진도 로텐션한 상태를 무너뜨리지 않고, 차가운 눈동자로 실롬을 내려다봤다.

"이봐, 다시 한번 들려줄게. 지금 이 강렬한 관장을 받고, 내 무릎에 무사히 똥을 새고 싶지 않다면.....

하임은 마치 불량한 쥐에게 예술을 담는 것 같은 무기질적인 소리로 방금전의 굴욕적인 대사를 다시 요구했다.

「『언니, 나에게 관장해 주세요』는, 귀여운 목소리로 울고 보여줘.

그 말을 들은 순간, 실롬 속에 남아 있던 마지막 소년으로서의 자존심이 맹연하게 반발의 불길을 올렸다.

「네, 말할 수 없잖아요...

실롬은 눈물로 하임을 강하게 노려보고, 가타가타와 떨리는 입술을 씹으면서 정중한 어조 속에 필사적인 거절을 담아 외쳤다.

언제나 내려오고, 언젠가 처치하고 싶다고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던 쌍둥이의 언니를 향해,「언니」라고 부르고, 한층 더「관장해 주세요」등이라고 스스로 요구해 보이는 등, 남자로서, 동생으로서의 죽음을 의미한다.

절대로 말하지 않는, 절대로 가지고 참아 보인다——그렇게 자신에게 말을 들려, 실롬은 엉덩이의 구멍을 필사적으로 응축하려고 했다.

하지만, 하이임은 그 실롬의 완고한 태도를, 단지 푹 코로 웃는 것만으로 일축했다.

「흠...

하임의 얇은 손가락 끝이 일체의 망설이지 않고 유리 관장기의 주사기를 훨씬 강력하게 밀어넣기 시작했다.

피스톤이 움직여 유리통 안에서 투명한 글리세린 관장액의 끝이 실롬의 항문 안쪽으로 약간 뉘르리와 침입해 나가는 감각이 리얼하게 전해진다.

「히, 아...

몇 방울, 약액이 점막에 닿은 것만으로, 실롬의 직장에 속삭이는 불온한 열이 달려, 방심하고 있던 배의 안쪽이 주신과 무거워졌다.

이것이 관장.

태어나 처음으로 되는 관장.

정말 된다.

이대로 강요당하면, 순식간에 자신의 모든 것이 끝나고, 똥마미레의 노예가 되어 버린다.

한계 빠듯한 공포가 실롬의 이성을 완벽하게 두드리고, 그는 프라이드도 존엄도 모두를 던져 버리고 미친 듯 외쳤다.

「와, 알았어요! 말합니다! 말하니까 멈춰 주세요, 하임...

「그럼, 빨리 말해? 내 손가락, 더 이상 멈추지 않아」

하임은 주사기를 약간 밀어주는 손을 풀지 않고 냉혹하게 카운트다운을 강요한다.

「오, 안녕 쨩...

실롬은 얼굴을 엉망으로 왜곡시키고 눈물과 누구를 처지면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 가장 파렴치한 간청의 말을 귀여운 목소리를 짜내고 외치며 마침내 완벽하게 굴복했다.

방 안에 남동생이 언니에게 관장을 초래한다는 최악의 배덕적인 대사가 허무하게 울려퍼진다.

실롬은 강제 M자 개각의 자세인 채, 허하와 격렬한 숨을 내쉬면서, 이것으로 어떻게든 최악의 주입만은 면할지도 모른다고, 뚫는 눈으로 하임을 올려다봤다.

그러나 하임의 입술에서 흘러넘친 것은, 실롬의 희미한 기대를 무잔으로 찢어, 바닥 차가운 듯한 얇은 미소였다.

「...

「에.....? 아, 아, 아아...

실롬이 절망적으로 눈을 뜬 순간, 하임의 양손은 유리 관장기의 주사기를 근원까지 단번에 힘차게 밀어넣었다.

쥬부츄우우우우우우우왓!!!!

200밀리리터의 농후한 글리세린 관장액이 굉장한 기세로 실롬의 항문에서 직장으로 단번에 빠져들어 간다.

말 그대로 시롬 스스로의 '오네다리'에 의해, 파멸의 관장 플레이가 완전한 막을 열었다.

체험판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으면 계속되는 제품판도 읽어 주시면 기쁩니다.